



진 정 일

한국고분자학회 제14대 회장
고려대학교
KU-KIST 융합대학원
교수

한국고분자학회 창립 40주년을 축하하며

40년 전 1976년 10월 8일에 창립총회를 개최(준비위원장: 김정엽)하고 첫발을 디딘 한국고분자학회의 출범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당시 고분자과학 · 공학도들이 대한화학회, 한국화학공학회, 한국섬유공학회 및 한국고무학회 등에서 학회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초대회장으로 모시기로 한 성좌경 박사께서 회장직을 완강히 거절하신 것도 큰 걱정거리였다. 그런 와중에도 고분자연구토론회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학회를 창립하였고, 이듬해 1977년 5월 6-7일에 첫 총회 및 연구논문 발표회를 가졌다. 초청강연 5편에 연구논문 16편이 발표된 첫 모임(총 230여 명 참가)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행사였다.

그 후에 꾸준히 이어진 학회의 눈부신 발전은 역대회장, 임원들과 사무국의 희생적 노력과 회원들의 끊임없는 후원과 참여, 업계의 지원 등에 힘입어 가능했다고 믿는다. 학회의 발전은 IUPAC International Symposium on Molecular Design of Functional Polymers(1989)와 IUPAC MACRO-Seoul 1996의 개최를 가능케 했으며, 이런 행사의 주체는 학회의 국제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현재 연 2회에 걸쳐 총 3,000여 편의 학술논문이 발표되고 참여인원이 4,000명에 육박하는 대 학회로 성장했으니 자랑스럽기만 하다. 또한 이들 숫자에 못지않게 회원들의 연구 질이 눈부시게 발전하여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으니 흐뭇하기 그지없다. 향후 IUPAC MACRO 2020을 다시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어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 자리를 빌려 금번 IUPAC-PSK40을 준비 · 개최한 조길원 회장과 현 학회 임원들, 또 조직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성공적 행사가 되도록 적극 참여해준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표한다. 학회 사무처 여러분의 노고에도 커다란 감사의 뜻을 표한다.

21세기는 융합과학기술시대라 한다. 과학기술의 융합이 가장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고분자과학이다. 건강과 질병, 환경과 에너지, 기후, 농업 등 인류가 풀어야할 숙제들에게 답을 제공할 수 있는 과학과 기술 또한 고분자과학에서 찾을 수 있다. 연구와 교육에서 다음 세대들이 융합적 사고력과 연구개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회가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선도해주길 바란다. 이를 위한 준비와 실행은 빠를수록 좋으리라는 생각이다.

끝으로 이제 우리 고분자학회가 불혹(不惑)의 나이가 되었다. 나이를 그만큼 많이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학회의 뿌리와 기둥이 그렇게 튼튼해졌으며, 이제는 학회가 앞으로 어느 길로 가야할지 그만큼 분명해졌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산하협동이니 국제화니, 연구의 탁월성이니 등등 멋스럽게 들리는 단어들을 열거하지 않아도 되리라 믿는다. 숨 가쁘게 자라온 한국고분자학회가 이제 화려한 꽃을 피워 탐스런 열매를 맺기를 기원한다. 또 그렇게 하리라 믿는다.

고려대학교, KU-KIST 융합대학원 교수(제14대 회장) 진 정 일